

金 時 萬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Bridge를 형상화한 陶磁造形 研究

2007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金 銀 映

# Bridge를 형상화한 陶磁造形 研究

金 時 萬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金 銀 映

# 認 准 書

金 銀 映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審査委員 \_\_\_\_\_ ①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 論 文 概 要

자연은 역사와 더불어 예술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다.

자연과 함께한 다리는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 사람들과 함께하였으며, 다양한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너다니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다리는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간적으로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지만 종교에서는 세속과 영원한 세상을 연결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금(古今)을 통해 나타난 다리의 사유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조형화 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다리의 서정적인 풍광은 많이 훼손되었지만 전설과 설화 등, 그 이념의 관점에서 주목해보며 ‘옛’과 ‘오늘’의 시각차를 나뉠대로의 조형의지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작방법은 다리가 갖는 외관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내기 보다는 점토의 질감을 자연스럽게 살린 덩어리들을 조적법으로 쌓아 올라가며 시각적 선택과 상상을 작업에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특정부분의 절제되고 단순화된 형상과 함께 속파기와 물레 등 자유로운 변형 작업과 즉흥적인 발상에서 오는 유연성에 의미를 두었다.

유약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조적된 조형의 형태에 흑유와 골드망간유를 중심으로 강한 발색의 유약을 사용하여 형상의 무게감을 유도하였다.

다리가 가진 소박한 정취는 발달된 현대 문화를 통해 육중한 다리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오늘날 인간의 모습

에 드러나지 않은 심층적 심리를 예술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다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

# 目 次

## 論文概要

I. 序 論 .....	1
1. 研究目的 .....	1
2. 研究內容 및 方法 .....	2
II. 本 論 .....	4
1. 다리의 歷史的 考察 .....	4
2. 다리의 民俗學的 事例 .....	5
3. 試作品 製作 및 說明 .....	10
1) 製作意圖 .....	10
2) 아이디어 스케치 .....	12
3) 製作過程 .....	16
(1) 胎 土 .....	16
(2) 成 形 .....	16
(3) 釉 藥 .....	17
(4) 燒 成 .....	20
4) 試作品 說明 .....	22
III. 結 論 .....	31

## 參 考 文 獻

## ABSTRACT

## 表 目 次

【표 1】 다리의 민속학적 사례 .....	6
【표 2】 조합토의 조합비 .....	16
【표 3】 유약 조합비 .....	18
【표 4】 유약 조합비 .....	19
【표 5】 중화도 유약 .....	19
【표 6】 소성 온도표 .....	21

## 圖 目 次

【도판 1】 충북 진천 농다리 .....	8
【도판 2】 전남 송광사 징검다리 .....	8
【도판 3】 경남 남해군 석교 .....	8
【도판 4】 전남 흥국사 흥교 .....	8
【도판 5】 전남 신안군 암태도 .....	8
【도판 6】 경북 경주시 호불효교 .....	8
【도판 7】 남정임 作 .....	9
【도판 8】 신상호 作 .....	9
【도판 9】 김인숙 作 .....	9
【도판 10】 김혜영 作 .....	9
【도판 11】 Kimpei Nakamura 作 .....	9
【도판 12】 Paul Soldner 作 .....	9

## 試 作 品 目 次

【시작품 1】 뒷 사람의 길잡이가 되리니 .....	22
【시작품 2】 잊혀진 존재 .....	23
【시작품 3】 텅빈 기억 .....	24
【시작품 4】 그 곳엔 내가 없다 .....	25
【시작품 5】 마음이 머무는 풍경 .....	26
【시작품 6】 잔재 .....	27
【시작품 7】 버리고 떠나기 .....	28
【시작품 8】 올려다 보다 .....	29
【시작품 9】 서로다른 회향 I .....	30
【시작품 10】 서로다른 회향 II .....	30

# I. 序 論

## 1. 研究目的

자연은 인간의 조형활동에 영향을 주어왔으며, 이것은 인간이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동시에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과거 섬(島)이었던 남해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었고 지금은 대교가 가로놓여 육지가 된 사실과 인연에 주목을 하면서 다리를 통해 변모되는 실상을 의미 있게 전개시키고자 한다.

자연과 오랜 세월 함께한 다리는 늘 우리 주변에 있었기에 그 역할을 모를 이유도, 낯설지도 않다. 놓여있던 자리에 늘 있던 존재이며, 과거와 현대를 통해 소통되는 현대인들에 마음과 마음의 연결통로가 되어온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의 잃어버린 순수성을 되찾으려는 대부분의 시도들에는 그 어떤 소박함 내지 고지식함이 존재한다. 그리고 대개는 자기의 근원을 어떤 아득한 원형적 실체로 소급(溯及)시키는 과거로의 시간여행, 즉 회향과 회귀의 형태로 나타나곤 한다. 본 연구자는 다리를 통해 ‘옛’과 ‘오늘’의 시각차를 조망하고 우리가 갖는 꿈과 이상, 각박한 현대생활이 주는 안일함과 잃어버린 기억의 편린(片鱗)을 조형을 통해서 회상하고자 한다.

따라서 심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통해 옛 다리의 이미지를 과거의 기억과 현대의 삶에 투영시켜 형상화 하는데 있어, 보다 자유로운 발상과 도자조형을 통하여 현대인의 긍정적인 삶을 위한 여유와 보dana은 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研究內容 및 方法

인간의 예술활동은 단순한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탐구에 의한 미적 상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현재에서 새로운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미래로 향하기 위해 과거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내면을 자각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심상을 통하여 다리가 가지는 고유의 느낌을 조망해 보고자한다.

과거의 기억을 유추(類推)하는 매개물으로써 다리의 형상을 투영하여 순수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이상적인 삶에 관한 소망과 회귀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는 주제의 상징성과 다리의 주변 환경을 임의의 매개체로 설정하였다.

본인의 심상을 함축한 다리는 옛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겨있는 각기 다른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의미를 부여하였고, 따라서 단순한 교통로 이상의 의미를 넘어 영혼과 정신의 교감 통로로서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주제의 형상화를 위해 먼저 다리에 얽힌 설화나 전설, 종교적으로 내재된 의미를 이해하고, 시대적 정서와 역사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조형적인 언어로 체계화 시키고자 한다.

작품 제작방법은 점토에 형성된 형태와 질감을 그대로 유지 한다는 점에 특히 유념하였다. 낙하성형 기법을 이용하여 손자국과 낙하된 힘에 의해 생성된 흙의 형태와 질감에 방향성을 띤 흙의 가변적인 특징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이는 점토에 반영된 행위성을 구체적인 실험과 습작을 통한 최소한의

조적으로 작업에서 능률적인 효과를 얻고자 한 것이다.

유약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조적된 조형의 형태에 무게감을 주기 위하여 단색으로 분무시유 하였고, 다소 집약적인 형태의 부분에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 부분적으로 옹기토를 붓으로 겹쳐서 덧바르거나 매트백유를 2차적으로 분무시유 하여 서정적인 색감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였다.

## Ⅱ. 本 論

### 1. 다리의 歷史的 考察

다리는 언제 어디서 기원하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을 만큼 인간의 삶에서 자연스러운 요소로 함께 해왔다.

우리나라 다리의 경우 본격적이고 진보된 기술로 짜임새 있게 다리가 만들어 지기는 삼국시대부터이며 이전의 다리는 정착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기위해 통나무를 걸치거나 주변의 돌을 띄엄띄엄 놓아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게 한 정도이다.

이렇듯 다리는 예부터 자연과 함께 우리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자연스러움은 하나의 경지로 넘어선 형상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다.

질박하게 빛은 옹기그릇들이 포개어져 있는 듯 순박한 우리 다리에는 민속과 전설이 깃들게 되면서 기념물로서 의미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sup>1)</sup>

우리나라의 전통미술에 있어서 다리를 소재로 한 그림을 보면 사바세계<sup>2)</sup>인 속세와 천상의 극락세계를 잇는 구름다리를 나타낸 불교적인 의미와 관련된 형식으로 보여 지고 있다.<sup>3)</sup> 또한, 현존하는 다리를 살펴보면 세계 어느 조각품에 뒤지지 않을 만큼 수수한 자연미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옛 다리 특징은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되어 지는 것이 많다.

---

1) 손영식, 『석조문화로 본 한국미의 산책-정검다리 건너 석성에 오르다』, 2000, p.95

2) 불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일컫는 말.

3) 손영식, 『옛 다리』, 2003, p.18-20

그 중 홍예 중심의 머릿들에 용머리를 새겨 돌출시킨 부분은 불교에서 용은 호법(護法), 호국(護國), 호민(護民)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것은 영혼불멸사상을 믿었던 과거의 우리 민족에게 고통의 세계에서 불국(佛國)의 세계로 가기위해 다리를 건너는 모든 중생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선조들의 믿음이 담겨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4)</sup>

옛 다리는 과거의 우리 민족에게는 건너는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였고 과거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진 역사 속 이야기들은 다양한 해석과 현상을 수용하는 관용정신을 바탕으로 나타나 과거 다리의 조형미는 미래의 새로운 가치로 옮겨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인이 추구하고 있는 첨단과학일 지라도 자연의 이치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인공과 자연의 사이에 '다리'라는 구조물은 우리의 미의식과 삶의 흔적이자 동시에 오늘날 시작된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자기회귀를 거듭하는 반복적인 삶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 2. 다리의 民俗學的 事例

민속은 언젠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습속(習俗)이 아니라 수천 년 내지는 몇 대에 걸쳐 전승하는 전통문화이다.<sup>5)</sup>

자연과 더불어 오랜 세월 함께해온 '다리'는 긴 시간만큼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존재했고 자연의 조화 가운데 탄생한 구조물에 대한 배경은 오래된 조형의식과 미적 가치로 많은 담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옛 다리를 살펴보면 다리에 얽힌 설화나 전설, 종교적인 이야기와 민속놀이에 이르기까

4) 손광섭, 『천년 후 다시 다리를 건너다』, 2003, p.96

5) 김의숙 외,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2004, p.5

지 수많은 이야기로 전해져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예로, ‘속세로 떠나 부처의 세계로 인도하는 다리’라는 불국사에 전해져 오는 종교적 민담이나, 액땀을 막기 위해 다리 밟기가 성해졌던 곳도 있었고, 그곳은 삶의 통로이자 인심(人心)의 집합소로 아직도 오늘날 전해져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래되어온 민속학적 사례는 다음과 표와 같다.

<표 1>

소개지	다리명	전래내용
순천시 승주읍	송광사 삼청교	세상과의 절연의 길, 관욕의식 이루어짐(속세와 인연을 끊고 불국으로 향하는 선승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전남 곡성군	태안사 능파각	다리아자 금강문이며 누각인 능파각은 가장 정갈한 마음으로 세속의 번뇌를 던져버리는 불국에 이르는 다리이다.
충남 논산시	강경 미내다리	미내다리를 자기 나이대로 왔다 갔다 하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정월 대보름날이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답교놀이에 얽힌 내용이다.
충북 진천군	진천 농다리	지금 밭 딛고 서 있는 이곳과 저 멀리 떨어진 피안(彼岸)의 세계로 다다르는 출구이다.
전북 남원시	광한루 오작교	견우와 직녀의 사랑을 지상에 옮겨놓은 광한루의 오작교는 한국최대의 흥예로 슬픈 사랑의 가교로 남아있다.
전남 여수시	흥국사 홍교	출가하는 비구니에게는 도를 이루기 전에는 속세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해탈교이며, 출전하는 의성군에게는 이 땅에서 왜적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집념이 담긴 다리이다.
경북 경주시	청운교 백운교	다리위의 세계는 천상(天上의) 세계요, 다리 아래는 속세를 표현하니, 청운교, 백운교를 지나면 바로 부처님의 나라인 것이다.
창원시 동읍	주남 돌다리	‘새다리’라고 불리는 이 다리는 주어진 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만드는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가장 잘 투영된 한국의 대표적인 다리 이다.

위와 같이 각 지역마다 다리에 관한 이야기는 다르게 전해져 오고 있으며, 다리에 관해 전해져오는 이야기는 자연, 역사, 사회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 크거나 작을 때가 있으며, 완만하거나 급속할 때가 있다. 하지만 오랜 전통으로 전해져오는 우리의 옛 자취는 결코 도태되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도 판



【도판 1】 충북 진천 농다리



【도판 2】 전남 송광사 정검다리



【도판 3】 경남 남해군 석교



【도판 4】 전남 홍국사 홍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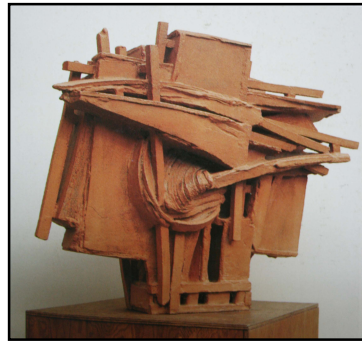
【도판 5】 전남 신안군 암태도



【도판 6】 경북 경주시 효불효교



【도판 7】 남 정 임  
image of bridge 2003



【도판 8】 신 상 호  
새 1998



【도판 9】 김 인 숙  
공간으로 부터 1988



【도판 10】 김 혜 영  
박제된 기억들 I 2005



【도판 11】 Kimpei Nakamura  
멀리서 들려오는  
히히덕거리는 소리 2001



【도판 12】 Paul Soldner  
#0015 2000

### 3. 試作品 製作 및 說明

#### 1) 製作意圖

현대의 다리가 가진 구조적 형상의 의미 보다는 내면의 사유관을 통하여 의미를 재해석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에 일면을 다리를 통해 현대적인 시각으로 조형화 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조형의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섬에서 육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정서적 의미들을 본인의 조형언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는 본질적 고독과 향수를 다리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하여 원래 속해있던 기능과 일상성의 맥락에서 벗어나 자연과 전통을 되새김질 하는 반성적 행위, 그리고 더불어 살아온 시간을 반추해 보고, 쉽게 변해가는 경향에 대한 보상적 입장과 인간이 상처받고 치유 받아야할 부분을 예술을 통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둘째, 설화나 전설, 종교적 의미로 해석된 이미지를 참고하였다.

종교에서 다리의 의미는 영원한 세상의 연결을 의미하고, 한국인의 마음 속에는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곳과 멀리 떨어진 피안<sup>6)</sup>의 세계로 다다르는 출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단순한 교통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6) 강 저쪽 둔덕이라는 의미에서 종교나 철학에서 이쪽의 둔덕, 즉 차안(此岸:현세를 가리키는 말)의 상대어로,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경지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설화나 전설, 종교적 의미를 토대로 다리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옛 다리를 주관적인 상상의 조형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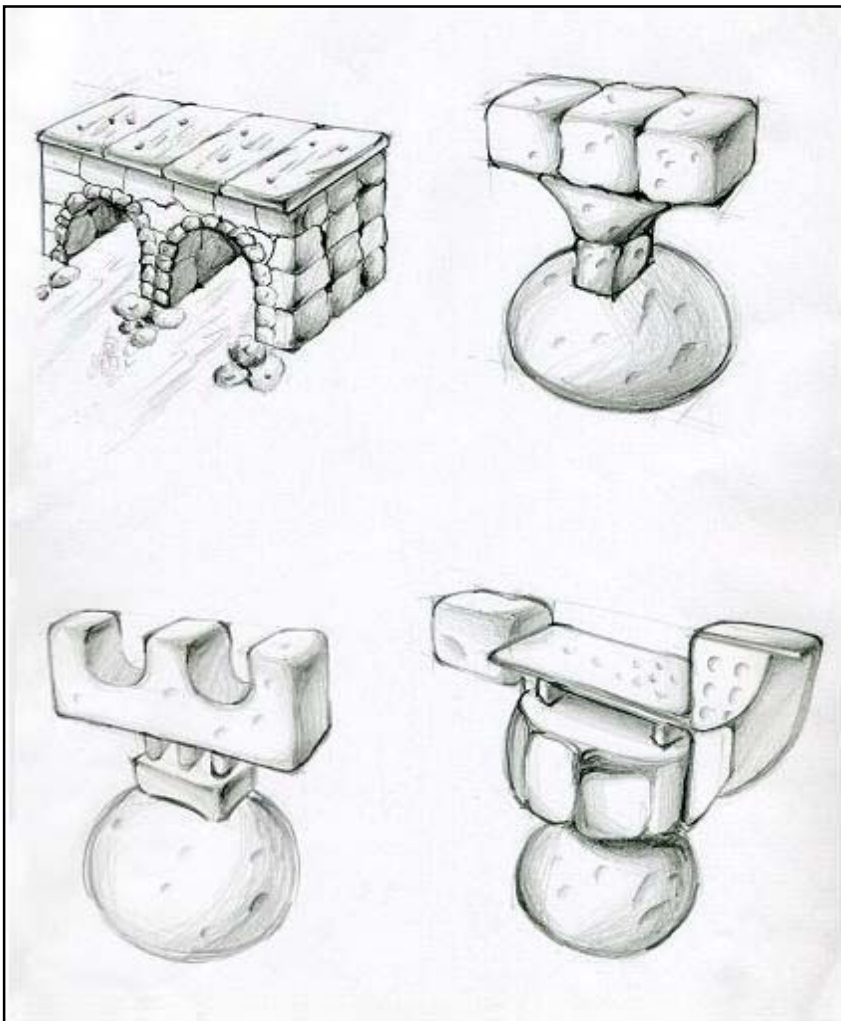
셋째, 자유로운 조형의지와 유희적 발상을 중요시 하였다.

형상을 조형화 하는데 있어, 충분한 자료를 통해 주·객관적인 시야를 넓힌 후 다리가 갖는 외관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재료와 기법에 의한 형태를 본인의 심상에 의하여 인간의 내면적 의식에서 오는 자유로운 변형 작업과 즉흥적인 발상에서 오는 우연성에 의미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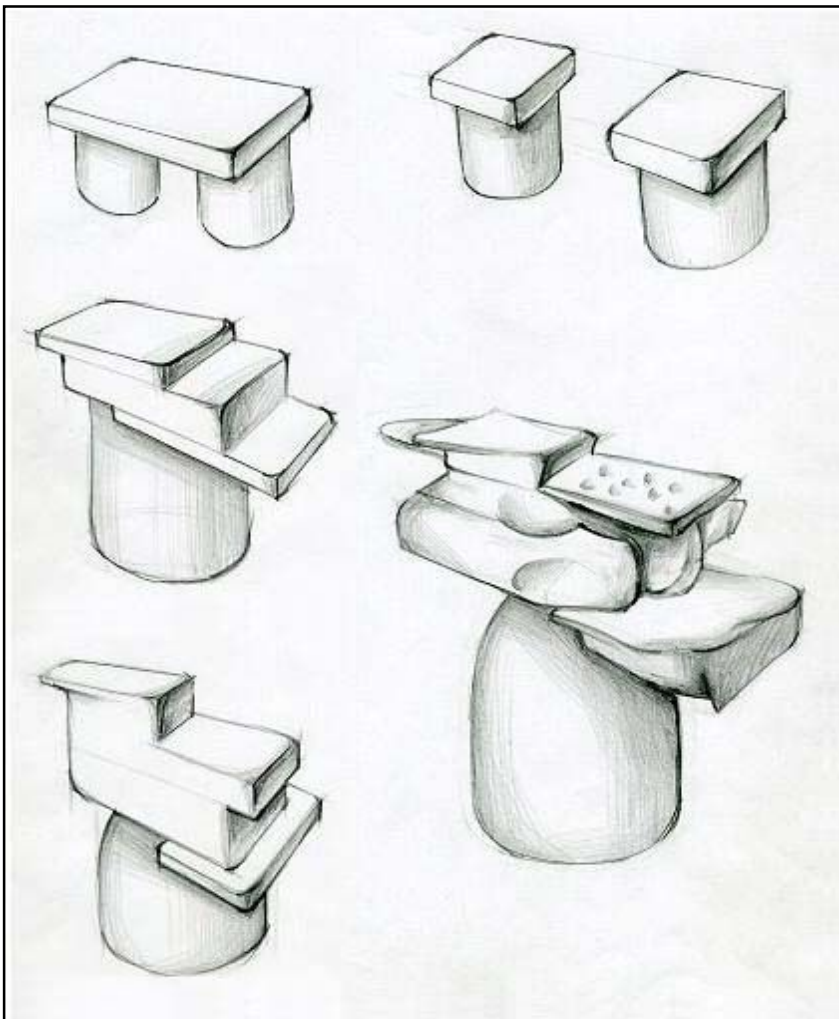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도자기의 물성을 가지고 대중과 함께 현실에 접근하며 도자조형의 시대적 필요성과 미래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아이디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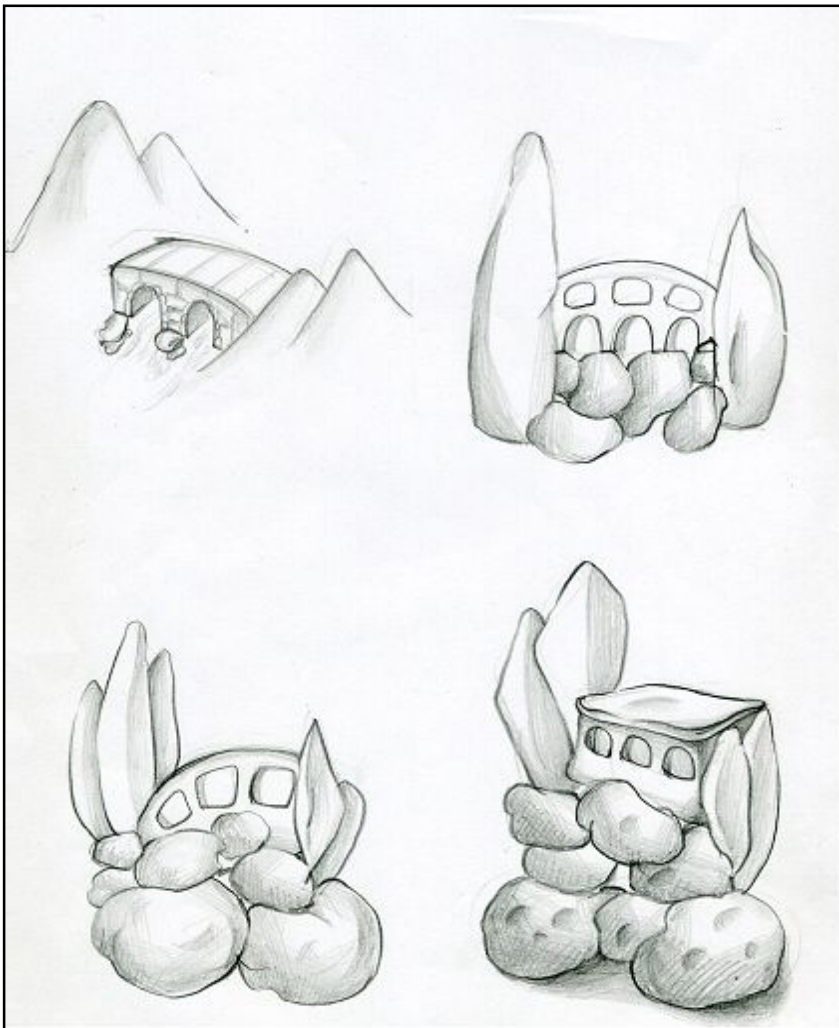
【시작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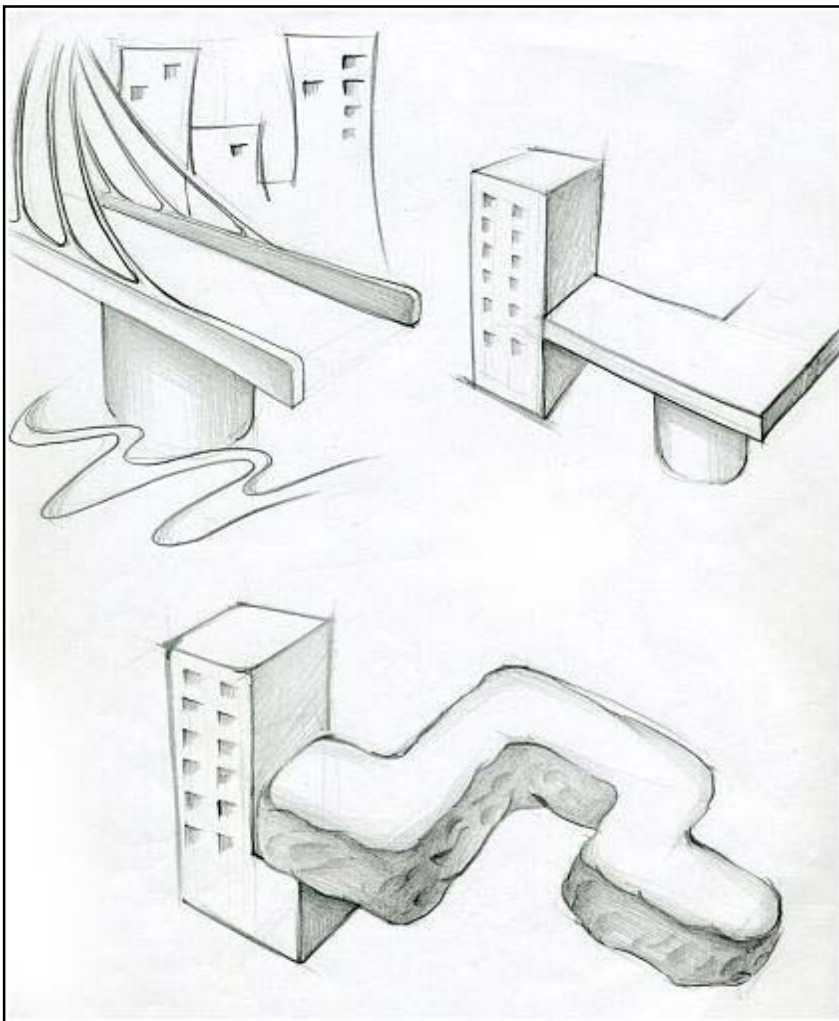
【시작품 4】



【시작품 5】



【시작품 9】



### 3) 製作過程

#### (1) 胎 土

본인이 추구하는 조형은 낙하성형 기법을 통한 조적형태이므로 내화성과 점성을 동시에 만족하고 거친 질감의 표현과 건조, 소성 수축률이 비교적 적은 샤모트가 다량 함유된 조합토를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성형, 건조소성 시 생길 수 있는 변형과 뒤틀림을 최소화 하고, 이는 구조적인 표현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표 2> 조합토의 조합비

(%)

원 료	장석	규석	도석	홍콩점토	카오린	규회석	샤모트	계
조합비	5	15	20	35	15	3	7	100

#### (2) 成 形

다리가 가지고 있는 외관의 형상을 묘사하기 보다는 특정 부분의 절제되어 지고 단순화된 형상과 함께 다리와 어우러진 풍경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였고, 흙의 가소성에 의한 질감표현을 적극 시도하였다.

점토를 지면에 던지면 그것의 형태와 질감에 방향성을 띤 역동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낙하성형기법<sup>7)</sup>이라고 한다. 물리적인 힘의 요소가 점토의 고유 물성에 작용함으로써 감정이 동반된 행위의 흔적이 흙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질감의 효과는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건조 상태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흙의 구성성분에 초벌 소성된 점토입자들이 포함되어 바닥에서 행위의 반작용을 받을 때 샴모트가 점토 표면으로 올라와 시각과 촉각에 자극을 주는 거친 질감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었다.<sup>8)</sup>

큰 덩어리를 이루는 부분은 태토를 컷팅하여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면을 돌과 나무막대기를 사용하여 거친 질감을 나타내고 속파기를 하였다.

우연을 가장한 최소한의 조적으로 시각적 선택과 상상을 작업에 최대한으로 끌어들이려 하였으며, 의미가 강조되는 부분에서는 집약적이고 보다 섬세한 이미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3) 釉 藥

유약의 사용은 자연색이 주는 느낌과 같이, 옹기토 슬립을 여러 번 덧발라 고태(古態)된 느낌의 효과를 주고자 하였고, 청, 녹색유를 시유한 뒤 매트백유를 분무시유해줌으로써 자연에서 느껴지는 청량감과 서정적인 본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조적된 형태의 무게감과 표면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입체감을 더할

---

7) 낙하성형기법 : 중력을 이용한 기법으로 점토덩이를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 형태를 얻어 완성하는 성형기법 (도예장식 기법) p.145

8) 김정원, 『행위와 선택에 의한 점토작업』, 1999, p.3

수 있도록 흑유와 골드망간유를 중심으로 단색시유 하였으며, 어두운 발색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중화도 유약으로 3차 소성하였다.

<표 3> 유약 조합비

(%)

성분		유약	무광흑유	무광흑유
원료명		화학생분		
인도 장석		$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40	41
금산 석회석		$CaCO_3$	19	24
부여 규석		$SiO_2$	6	17
인도네시아 카오린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20	8
산화망간		$MnO_2$	3	3
산화크롬		$Cr_2O_3$	3	2
산화코발트		$Co_2O_3$	·	1
산화제2철		$Fe_2O_3$	9	4
계			100	

<표 4> 유약 조합비

(%)

성분		유약			
		매트백유	크롤링유	골드망간유	동유
원료명	화학성분				
인도 장석	$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48	21.2	5	48
금산 석회석	$CaCO_3$	3	8.9	·	·
부여 규석	$SiO_2$	3	32	·	4
인도네시아 카오린	$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23	24.6	·	22
백운석	$CaCO_3 \cdot MgCO_3$	23	·	·	22
탄산마그네슘	$MgCO_3$	·	13.3	·	·
탄산동	$CuCO_3$	·	·	·	4
산화망간	$MnO_2$	·	·	35	·
산화동	$CuO$	·	·	5	·
산화코발트	$Co_2O_3$	·	·	3	·
옹기토	Red Clay	·	·	48	·
볼 클레이	Ball Clay	·	·	4	·
계		100			

<표 5> 중화도 유약

색상	Red	Yellow	Blue
번호	C-230	T-110	T-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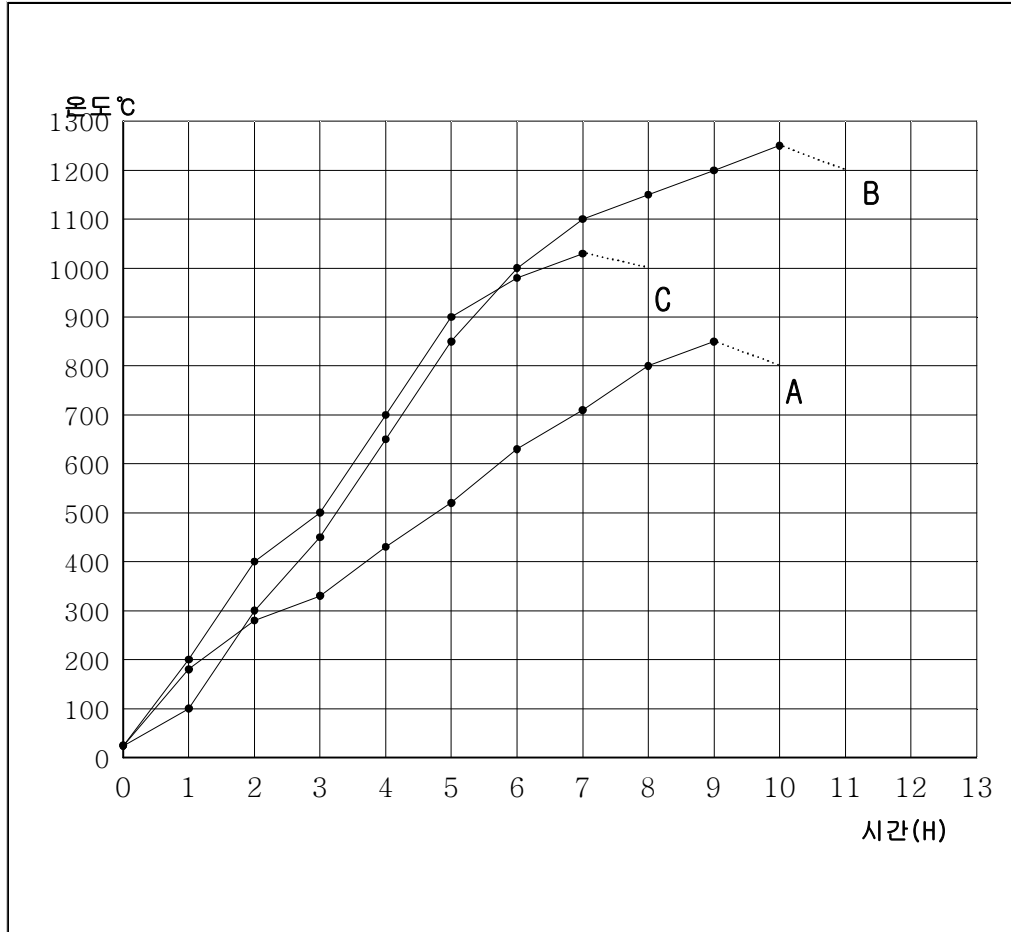
※제조사 - 한국 석산요업

#### (4) 燒 成

1차 소성은 속파기와 접합부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그늘에 충분히 건조시킨 후 0.5m<sup>3</sup> , 1.0m<sup>3</sup> 도염식 가스가마에서 850°C까지 초벌구이 하여 유약의 흡수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2차 소성은 1250°C로 가스가마에서 산화소성하였다.

망간 골드유나 동유가 높은 온도에서 흐르는 현상을 우려하여 가마 하단부에 재임하여 소성하였고, 2차 소성 후 소지에 부착된 유약의 발색정도와 갈라짐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 유약을 제차 두껍게 분무시유하여 같은 온도에서 10분내지 15분 정도를 더 끌어주었으며, 중화도 유약은 1030°C로 3차 소성하였다.

<표 6> 소성 온도표



A: 1차 소성    B: 2차 소성(산화)    C: 3차 소성

#### 4) 試作品 説明

##### 【시작품 1】 뒷 사람의 길잡이가 되리니...



옹기토 slip 매트백유 · 1250℃ 산화소성 · 43×23×31(H)cm

개울이 있어 옛 기억을 추억하고 개울위에 놓인 다리로 지난날을 회상한다.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오늘날 우리들은 순간적인 번덕과 습관과 둘레의 흐름에 지배당하면서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에서 찾을 수 있는 과거의 모습을 다리에 투영시켜 이 길 끝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으로 현대인의 마음속에 잔재해 있는 다리위의 흔적을 통하여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담고자 하였다.

물레성형 후 흙판 조각을 쌓아 올라가면서 제작하였다. 옹기토 슬립을 붓으로 바르고 매트백유를 분무시유해줌으로써 톤의 차이에 변화를 주었고, 눈 내린 뒤 다리위의 서정적인 풍경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시작품 2】 잊혀진 존재



유광흑유, 중화도 유약 · 1250℃ 산화소성 · 47×43×42(H)cm

무심코 바라본 얇은 개울가의 돌맹이들은 어린 시절 집 앞 냇가의 작은 돌다리를 회상하게 만든다.

물과 하늘과 다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가슴 설레게 했던 그 풍광은 이제는 지나버린 기억으로 남고 달라진 환경에 익숙해져야 하는 현실 앞에 놓여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길 위의 육중한 다리만큼이나 수많은 차들과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일상적인 소중한 것을 지나친다.

본 작품은 개인적 사고와 회상의 기록으로 남겨진 의식 혹은 무의식의 흔적을 통해 본인의 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3】 텅빈 기억



크롤링유 · 1250℃ 산화소성 · 42×25×54(H)cm

발달하는 현대문명 속에서도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 현 사회의 이면에는 과거에 대한 향수나 귀소성이 욕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것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본 작품은 산업사회로 나타나는 회귀성과 인간의 욕구의 틈에서 위태하게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다리로 묘사하였으며, 크롤링유를 두껍게 시유하여 존재 상실의 표현으로 갈라짐을 극대화하였다.

조형적으로 전체 외형에 긴장감을 유도하여 현대인들이 가지는 불안정한 모습을 작품에 엮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작품 4】 그 곳엔 내가 없다



골드망간유 · 1250℃ 산화소성 · 42×15×37(H)cm

옛 조상들은 다리에 각기 다른 세계와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고 한다.

본 작품은 돌아갈 곳 없이 떠도는 현실에서 순수한 안식처로 떠나는 매개체이며 다리는 우리가 현실과 저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끝없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엷매이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도착점이 없는 고립된 형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서로 다른 높이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다리의 형상을 투영시켜 표현하였고 어두운 단면을 묘사하기 위해 골드망간유를 선택하게 되었다.

【시작품 5】 마음이 머무는 풍경



동유, 매트백유 · 1250℃ 산화소성 · 42×27×52(H)cm

모든 현대인들은 과거와의 대화에서 미래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 삶의 순간순간에 그것은 때로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현실을 꿈꾸는 시선이 되고 곧 소멸할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어찌면 현실을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허상에서 오는 불안한 심리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리는 자연과 더불어 오랜 세월 늘 같은 자리에 존재해 왔다. 여기서 나는 청색을 통하여 지난 삶에 잠재된 비전(比前)을 서정적인 형식으로 승화하고자 하였고, 매트백유로 이중시유함으로써 겨우내 움츠린 우리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6】 잔재



옹기토 slip · 1250℃ 산화소성 · 35×28×58(H)cm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과거 존재했던 모든 것을 하나, 둘 짓밟아 버리곤 한다. 오래된 이끼로 축적의 시간을 나타내는 옛 다리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소박한 풍경을 잃어가고 있다.

반복적으로 쌓아올린 거친 점토의 형태로 현대인의 잠재의식 속에 누적된 기억의 단상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옹기토 슬립으로 두껍게 덧칠해주어 표면의 갈라짐의 효과로 사라져 가는 옛 다리의 모습을 기억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7】 버리고 떠나기



매트백유 · 1250℃ 산화소성 · 46×19×49(H)cm

화려하고 현란한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감각적인 자아와 삶의 뒷면에 숨어있는 공허함은 현대인들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든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각틀과 부러질 듯 솟아있는 잔재의 형상을 다리에 투영하여 도시 속 인간의 불안정한 공허함과 현대인들이 저마다 가슴속에 막연한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있는 상실된 고향, 원형(原形)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전체시유는 형태미를 강조하기 위해 단순하고 명료한 느낌의 매트백유로 분무시유 하였고, 먹을 사용하여 균열간 곳을 스펀지로 두드려 복잡한 현대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8】 올려다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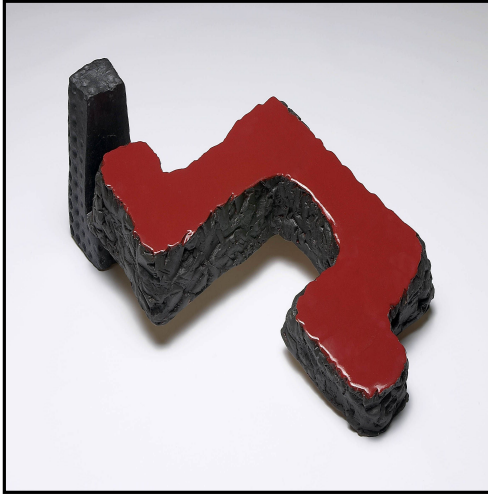


유광흑유 · 1250℃ 산화소성 · 48×23×60(H)cm

끊임없이 이동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갈구하는 현대인들의 일상은 과편적인 조각으로 흩어져 고립과 소통 불가능성, 그에 따른 내면의 깊은 상실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낙하성형으로 생성된 각각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접합함으로써 불안정한 조형 형태에 긴장감을 엿볼 수 있도록 하였고, 표면의 질감과 곡선은 현대인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대안하고자 하였다.

【시작품 9, 10】 서로다른 회향 I, II



68×50×24(H)cm



60×50×14(H)cm

무광흑유, 유광흑유, 중화도 유약 · 1250℃ 산화소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때는 아쉬움도 미련도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갓난아이가 그리움을 알 즈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고향 바다를 그리워하며 大橋를 건널 때, 다시 되돌아올 때 나는 누구였던가를 되새겨 본다.

표면의 거친 질감을 파도의 이미지로 추상적으로 묘사하여 방황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나타내고자 하였고, 이런 심리적 갈등감은 Red C-230의 중화도 유약의 강한 발색을 통해 작품의 내재된 깊이를 한 층 더하고자 하였다.

### Ⅲ. 結 論

본 연구는 자연의 구조물이 작가의 조형입장과 태도에 따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자아의 존재적 가치는 자기완성과정 중 오랜 시간에 걸쳐 정제(精製)된 여러 형태로 나눌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회향과 회귀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다리’라는 하나의 형상을 본인의 내면적 심상으로 재구성하여 현대인의 이상적인 삶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리’라는 평범한 소재는 본인의 관찰과 경험에 의해 조형작업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다.

둘째, 전설이나 설화, 종교적 의미로 해석된 내용들이 담론으로 제공되어 작업에 도움이 되었다.

셋째, 성장과정에서 체험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유희적 발상으로 전개되면서 독자적인 조형의 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넷째, 대상을 직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식의 전환과정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부합하는 일환(一環)임을 깨달았다.

제작과정에서의 여러 경험과 실수는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계기였으며, 이러한 연구과정이 현대인들에게 마음속 깊이 잔잔한 감흥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해 본다.

## 參 考 文 獻

- 김경수, 『건축미학 산책』, 발언, 2001
- 김병익, 『도예장식 기법』, 태학원, 1999
- 김선풍 외, 『우리 민속학의 이해』, 月印 도서출판, 2002
-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4
- 김의숙 외,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북스힐, 2004
- 신방훈, 『현대미술 : 대상과 존재 사이에서』, 글방문화, 1998
- 손광섭, 『천년 후, 다시 다리를 건너다』, 이야기꽃, 2003
- 손영식, 『옛 다리』, 대원사, 2003
- 최진연, 『옛 다리, 내 마음속의 풍경』, 한길사, 2004
- K.해리스, 『현대미술-그 철학적 의미』, 서광사, 1988
- 왕열, 『새, 삶에 대한 은유로 날다』, 월간미술, 2005,12
- 김정원, 「행위와 선택에 의한 점토작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 이정은, 「인간의 일상이미지를 표현한 도자조형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정소진, 「새(鳥)의 이미지를 주제로한 도자조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02

# ABSTRACT

## A Study on Pottery Shapes using Bridges

Kim, Eun Young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 s University

Nature has been the most important origin for inspiration in artistic expression along with history.

We see bridges that have been with nature also have been with people for thousands years, and various stories about the bridges have been transmitted.

Bridge with a meaning of more than just crossing not only connects the past and the future in terms of time, but also connects mind and mind in terms of space and connects the secular world and the eternal world in the religious viewpoint.

The current study aim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bridge in ancient and modern times with modern viewpoint,

Accordingly, it intended to sugge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n terms of legend, tale and ideology although lyrical scenery of bridge was damaged a lot.

The production method was to piling up lumps with natural clay texture and express visual choice and imagination on the work rather than expressing the exterior of bridge as it is. Along with restrained and

simplified shape in a certain part, liberal transformations including digging inside and a spinning wheel, and accident from improvised conception were emphasized.

Strong glazes such as black oil and gold manganic oil were used for the piled shape that can look light in order to give a sense of weight to the shape.

Simple atmosphere of bridge was transformed into heavy bridge through developed modern culture. The meaning of bridge was thought again focusing on expressing deep psychology that is not seen in the present containing the past and future-oriented present human image with art.